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이계훈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aver.com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2024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



공군본부와 공군전우회가 주최하고 제 18전투비행단이 주관한 2024 공군작전 전승기념식이 9월 13일 강릉기지에서 공군 참모총장, 공군전우회장과 중앙회 회원, 공군전우회 대구지부/강릉지회 회원, 영동 지역 부대장과 기관장, 강원동부보훈지청장, 강릉시민과 학생 및 18전비 장병 등 약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는 식전행사로 군악대 공연과, 본 행사로 개식사, 국민의례, 전투 역사, 참모총장 기념사, 공군전우회장 회고사, 강릉시장과 강원동부지청장

의 축사에 이어 6·25 참전용사에게 꽃목걸이 전달, 강릉시립합창단 축하공연 및 공군가 제창순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식후행사로는 의장대 시범, 승호리 철교 폭격장면 재현, 블랙이글스 에어쇼 및 행사장 관람이 있었다. 본회 이계훈 회장은 회고사를 통해 “전쟁초기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없이 미국이 지원한 열대의 무스탕전투기를 한 번의 비행훈련만 마치고 바로 다음날 전투출격을 하였고 전황에 따라 이곳 강릉기지로 이동한 후 본격적인 항공작전을 통해 우리 조국

을 지킬 수 있었다”며, “이는 선배님들의 투지와 희생으로 지켜낸 조국 대한민국은 오늘날 경제강국으로 성장하였고 우리공군도 첨단 선진 공군으로 발돋움하였다”며 “그 이면에는 과거 선배님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선배님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교훈삼아 더욱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아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는 6·25전쟁당

시 전투기 한 대도 없었던 우리공군은 전쟁발발 이틀 후인 6월 27일 10명의 조종사를 일본으로 보내 미군으로부터 10대의 무스탕전투기를 인수받아 7월 2일 대구기지에 도착한 후 바로 다음날 부터 출격을 개시하였고 전열을 정비한 후 강릉기지서 본격적인 작전을 전개하여 공군 최대 전적으로 평가받는 승호리철교 폭격작전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등 6·25전쟁기간중 총 7851회의 공군작전 전승을 기념하는 행사다.//

전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10월 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거행됐다.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강력히 힘으로 지키겠다는 우리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자리였다. 또 적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국제사회에는 평화를 지지하는 의지를 천명하는 시간이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행사에는 장병, 군 가족, 예비역, 보훈 단체, 참관 신청 국민 등 6,30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분열행사에서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최초로 공개됐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톤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미공군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력을 현시했다. 한편 오후에는 송래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이루어졌다.//

이계훈 회장, 영호남 지부·지회 단합대회 참석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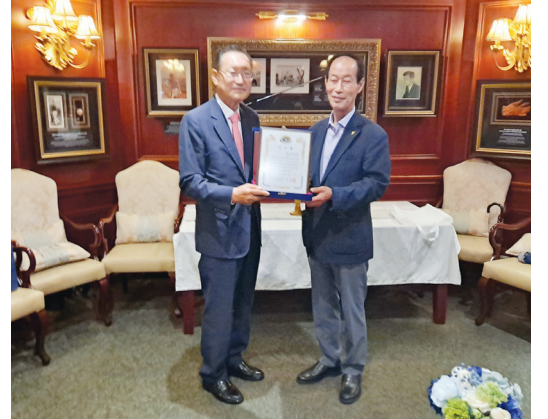
중앙회 이계훈 회장은 9월 25일 창원지회 주관으로 광주지부와 경남지역 (창원, 사천, 진주)지회간 동서화합과 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영호남 지부/지회 화합 및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4개지역 지부/지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부 회원 12명과 경남지역 지회 12명이 사천기지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함께한 후 사천 시내 음식점에서 열린 만찬시에는 3개 경남지역지회 회원 14명이 추가 참석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회장은 “영호남 지부/지회 화합 및 단합행사를 주관한 창원지회장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전우회를 더욱 활성화 및 전우애를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며 참석자 모두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계훈 회장, 이강욱 전 골프동호회장에 감사패 전달

본회 이계훈 회장은 7월 17일 공군전우회 산하단체인 골프동호회장을 역임한 이강욱 전 회장과 오찬을 함께 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며 환담을 나누었다.



본회 이 회장은 “4년간 골프동호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신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골프동호회가 전우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욱 전 회장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까지 골프동호회장으로 재직시 골프동호회원들의 친목도모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골프동호회 단체장 및 총무단 회의/ 친선운동과 전우회 주관 골프대회(년1회)시 참가자들을 위해 상당액의 경품과 참가상품 등을 후원한 바 있다.//

공본 인참부장 내방

공군본부 권영민 인참부장이 8월 26일 본회를 방문하여 이계훈 회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공군예비역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방문한 인참부장은 예비역들의 복지정책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자문을 받았으며, 본회 방문에 이어 공사총동창회 및 공군, 학사장교회도 방문하여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군 ROTC 장교회장단 내방



공군 ROTC 장교회(회장 김석찬) 임원 3명이 8월 7일 본회를 방문하여 이계훈 회장 및 임직원들과 함께 공군전우회 발전방향과 아이디어 제의에 대한 환담을 나누고 인근 음식점에서 중앙회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부서관전우회(원우회) 회장단 내방

본회 산하단체인 공군부서관전우회 차주성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3명은 7월 30일 본회를 방문하여 중앙회 임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발전기금 200만원을 이계훈 회장에게 전달했다.



차 회장은 부서관회의 주요 활동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간략하게 보고하였으며, 이 회장은 “부서관회가 전투부대 위문방문, 자체 골프대회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높이 치하하며 회장단을 중심으로 부서관회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평지회장 내방

김수영 양평지회장이 9월 23일 본회를 방문하여 이계훈 회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김 지회장은 양평지회의 주요활동사항들을 간략히 보고하고 양평군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공군출신들의 근황을 전해주었으며, 본회 이 회장은 “김 지회장은 양평지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을뿐아니라, 특히 인근 공군지회들간의 유대강화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음에 고맙다”고 말했다.//

중앙회 회장단 친선운동

본회 중앙회 회장단 12명은 9월 4일 성남기지 체력단련장에서 회장단 친선운동을 했다.



이계훈 회장은 “회장단의 만남자체가 중요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 전우회 발전을 위한 활성화와 의견 수렴 및 지혜를 모을 수 있다”며 “회장단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 본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249기 부서관후보생임관시 보라매상 시상

본회 차주성 부회장(부서관전우회장)은 8월 30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249기 공군부서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하여 이상준 하사에게 공군전우회에서 수여하는 보라매상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임관한 신입부서관 162명은 약 3개월간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 정예 부서관으로 거듭났다. 행사는 수료증 및 상장수여,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훈시 및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순으로 진행됐다.//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개최



공군은 9월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군 창군 75주년, 대한민국의 국방우주력과 공군의 역할’을 주제로 ‘제26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항공우주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발전을 위한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는 199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회의는 공군이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 주관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역대 공군참모총장과 성일중 국회 국방위원장, 방산기업 등 항공우주 분야 민·관·군·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의 개회사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환영사로 문을 연 회의는 축사, 세션별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국제 전자기전 콘퍼런스 개최



공군은 7월 10일부터 이영수 참모총장 주관으로 경기도 성남시 밀리토피아호텔 바이마린에서 ‘2024 국제 전자기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제전자전협회(AOC)가 공동 주관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전자기전 분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콘퍼런스는 2016년부터 ‘공군 전자기전 발전전략 수립’을 목표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이틀에 걸쳐 행사를 진행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확대했다. ‘미래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자기전 스펙트럼 우세달성 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올해 콘퍼런스는 이 총장의 개회사와 이진완 ADD 소장 환영사, 성일중 국회 국방위원장과 부승찬 국방위원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아울러 군·산·학·연 전자기전 전문가의 세션별 발표가 펼쳐졌다.//

공군작전사령관, ‘2024 피치블랙’ 참가 지휘비행

김형수(중장) 공군작전사령관이 8월 1일(현지 시각)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린 대규모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4 피치블랙(Pitch Black)’에 직접 동참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F-15K 전투기에 탑승해 청군(Blue Air·아군) 소속으로 다국적 연합공군의 F-22, F-35A/B 등과 방어제공(DCA) 임무를 수행하며 훈련단원들의 사기를 끌어 올렸다.

우리공군은 7월 12일부터 8월 2일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 F-15K 6대와 100여명의 병력이 참가했으며, F-15K는 우리공군의 다목적공중급유기 KC-330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호주 다윈기지에 도착했다.//



2024 항공무기체계 기술 발전 세미나

공군은 9월 1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항공무기체계 발전추세와 미래환경 대응방향’을 주제로 ‘2024년 항공무기체계 기술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군본부 주최, 공군군수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국내외 항공기술, 항공전자·소프트웨어 분야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환영사에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부승찬 의원의 축사, 성일중 위원장의 서면 축사,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의 기조강연, 분과별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KF-21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비행체계, FA-50 성능 개량방안 등 국내외 5개 방산업체가 전시한 장비도 관람했다.//



2024 민·관·군 심포지엄 개최

공군은 9월 26일 공군호텔에서 ‘2024년 민·관·군 항공우주 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공군이 주최하고 국방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산림청이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선진화된 항공우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심포지엄은 채운기(준장) 공군본부 감찰실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성일중 국회 국방위원장과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의 축사, 특별강연, 주제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동성과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역시 다양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전비 153전투비행대대 공식 해체

45년간 F-4E 팬텀(Phantom) II의 항공작전을 주도한 비행 부대가 8월 30일 해체됐다.

이로써 우리 군 내 F-4 부대와 작전요원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공군10전투비행단(10전비)은 이날 수원기지 필승교육관에서 ‘153전투비행대대 해체행사’를 열었다. 153대대와 예하 153정비중대는 지난 6월 팬텀 퇴역식에서 최종비행 임무를 수행한 후 두 달 넘게 부대 해체 업무까지 성공적으로 해냈다. 대대는 1979년 3월 10일 대구기지에서 당시 세계 최고였던 팬텀 운용을 목적으로 창설됐다. 이후 청주기지를 거쳐 2018년 수원기지로 이전했다.//



공군3훈비 217비행교육대대 ‘1만 시간 무사고’

정예 조종사를 양성하는 공군3훈련비행단(3훈비) 217비행교육대대가 8월 19일 ‘1만 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이번 기록은 2022년 4월 2일부터 2년 4개월에 걸쳐 완성됐다. 대대는 공군 조종사 비행교육 과정 중 기본과정 및 공중기동기 고등과정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비행교육을 수행하면서도 부대원 모두가 비행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한 결과 이번 기록을 달성했다고 대대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 79주년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 아래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된 '8·15 통일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바로 통일"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밝힌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다.//

한·일 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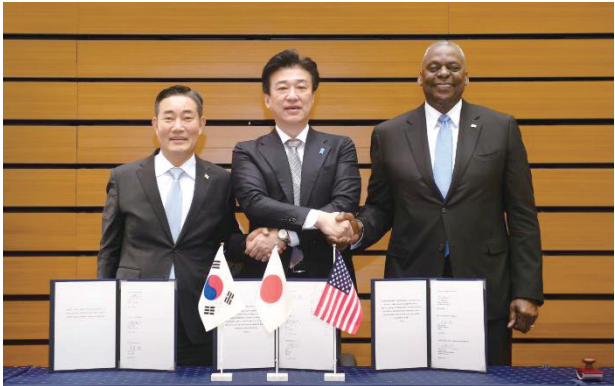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는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 발전과 북한 도발에 대비한 양국 간 공조 강화에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 가기로 했다. 양국의 과거사 논의도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가혹한 환경 아



래 많은 분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파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도쿄서 첫 순환 국방장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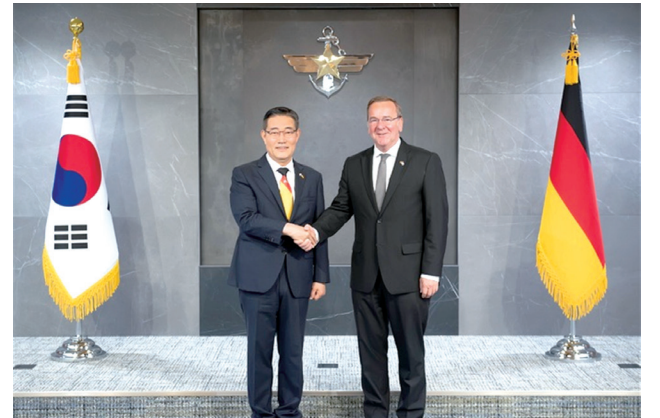
7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참석해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열렸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3국 국방장관이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난 적은 있으나 3국 중 한 나라에서 공식 회동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3국 장관은 6월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의를 하고, 국가별 순환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유엔사 회원국 합류

6·25전쟁 당시 의료진으로 파견했던 독일이 유엔군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유엔사는 8월 2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유엔사의 새로운 회원국이 가입한 것은 이탈리아가 탈퇴했다가 2013년 재가입한 이후 11년 만이다. 6·25 전쟁 당시 독일은 동·서독이 분단된 상태였고 동·서독 모두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서독은 1953년 의료진을 파견하겠다고 유엔에 제안했고 의료진을 파견했다. 117명 규모 독일 의료지원단은 정전협정 체결 후인 1954년 문을 연 서



독적십자병원에서 약6년간 환자 약 30만 명을 치료하고 임산부 6000여명의 출산을 도왔다. 정전협정 후 의료진을 파견해 의료지원국이 되지 못했지만 한국 정부는 2018년 독일을 의료지원국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6년 뒤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다.//

한·필리핀 호주 하늘서 우정비행

우리 공군 F-15K와 필리핀 공군 FA-50PH 전투기들이 7월31일(현지시간) 호주 상공을 함께 날았다.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4 피치블랙(Pitch Black)'에 참가 중인 두 나라 공군이 우정비행을 펼친 것이다. 한국·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가 수출한 전투기로 해외에 전개한 필



리핀과 '제3국'에서 이뤄진 비행이라 의미가 크다. FA-50PH의 피치블랙 참가는 '국산' T-50 계열 항공기가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가한 첫 번째 사례기도 하다.//

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및 2024 서울안보대화

한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ROK-UNCMS DMM·ROK-UNC Member States Defense Ministerial Meeting)'가 9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네덜란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18개국의 장·차관 및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Under One Flag, One Spirit, Fight Together for Freedom & Peace)'를 슬로건으로 한반도 및 국제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유엔사·유엔사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24 서울안보대화(SDD·Seoul Defense Dialogue)'와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 2024)'도 연이어 개최됐다. 서울안보대화는 11~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으며, 8개국 장관급 인사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사위원장을 포함해 총 68개 국가, 국제기구에서 900여 명이 참가했다. 대주제는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이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미를 담았다.//



유공자 보상금 5% 인상...참전명예수당 월 45만 원

국가보훈부(보훈부)는 9월 8일 2025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6조4057억 원)보다 757억 원(1.2%) 늘어난 6조481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가량 인상된다.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

금과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더 많이 늘어난다.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올해 60만8000원에서 내년 65만1000원으로 7%,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51만6000원에서 58만5000원으로 13.3% 각각 인상된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 늘어 45만 원씩 지급된다.//